

# 생각하고 감동할 수 있는 영화이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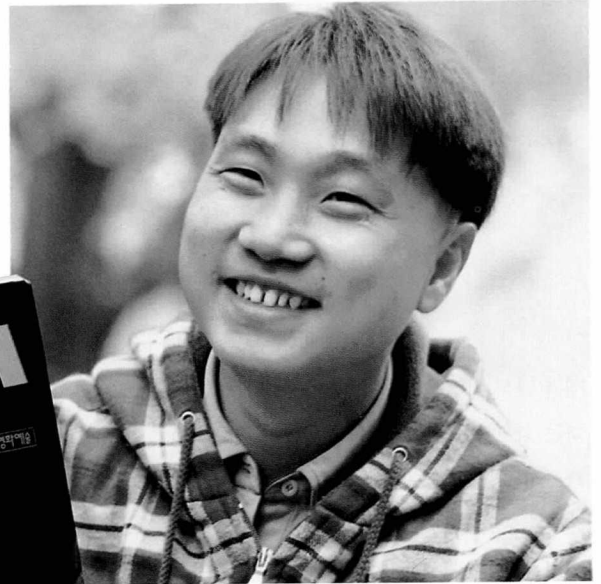
〈초인지대〉 조감독 박종영씨가 뽑은 《필름아트 : 영화예술》

박종영씨(30)를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그는 감기형 감독의 차기 작품 〈초인지대〉의 조감독으로 일하고 있지만, 조감독을 기억해주는 영화 관객이 몇이나 될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지난 해 열린 '제2회 님프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14분짜리 단편영화 〈링반데룽〉 때문일 것이다. '링반데룽'은 피로나 폭우, 폭설 등으로 방향 감각을 잃고 산을 등다가 굶어죽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박씨는 등산 갔다가 링반데룽의 상황에 빠진 세 친구를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삶을 표현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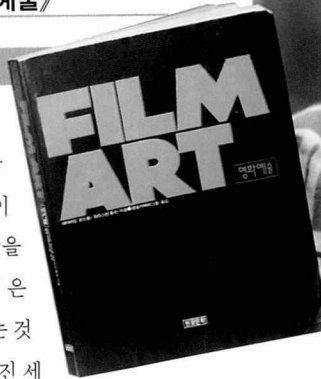
박씨가 꺼내 보여주는 책은 《필름아트 : 영화예술》(데이비드 보드웰 외, 청동 카메라 그룹, 현장문학)이다. 그의 소장본은 1993년에 번역돼 나온 책인데, 지금은 절판됐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론과실천에서 나온 책은 아직 살아 있다. 이 책은 영화인들에게는 교과서적인 책이라며 그는 말을 꺼낸다.

“《영화의 이해》(루이스 자네티, 주진숙 외, 현암사)가 깊은 책이라면 이 책은 넓은 책이에요. 내용, 형식부터 촬영기법까지 넓게 다루는 정석 같은 책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영화는 예술이면서도 학문이구나 생각하게 됐죠.”

영화 만드는 사람이 재미없게 영화책을 골랐나며 불만을 표시했더니 이 책이야말로 자신에게 '근본 같은 책'이라고 말한다. 알고 봤더니 그의 전공은 문학이다. 물론 그가 전공으로 문학을 선택한 것은 시나리오를 쓰겠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사실 문학은 시나리오의 묘사에 많은 도움이 되긴 하지만, 영화와 화법이 다른 만큼 그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는 회곡에 매



“내용, 형식부터 촬영기법까지 넓게 다루는 정석 같은 책이죠. 이 책을 읽으면서 비로소 영화는 예술이면서도 학문이구나 생각하게 됐죠.”



달렸고 창작노래극 동아리를 만들어 열심히 활동했다. 그런 가운데 만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당시 영화선배들은 원어로 이미 많이 읽었지만, 그는 번역본이 출간돼야 비로소 접할 수 있었다. 하긴 그가 이 책을 만난 게 대학 2학년 때니까 그리 늦은 것도 아니다.

“요즘 영화이론서들을 살펴보면 기술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영화텍스트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 많이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이론서긴 하지만 읽으면서 생각하고 감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게 소중한 책이죠.”

〈해변으로 가다〉에선 촬영부 스태프로, 〈꽃섬〉에선 객원제작실장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에선 조명부 스태프로 일하는 등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경력을 쌓아온 박씨는 〈초인지대〉를 마치고 나면 그동안의 현장경험을 살려 본격적으로 장편영화 입봉을 준비할 예정이다. 그때도 물론 이 책은 그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 김장근 기자

다름에서 디자인은 행복을 느낀다

##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Communication  
Design Partner Darum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쟁력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디자인,  
바로 다름의 경쟁력입니다.

시각커뮤니케이션 : 브로슈어 / 카탈로그 / 홍보물 / 패키지 / CI, BI  
출판커뮤니케이션 : 잡지 / 사서 / 사내외보 / 표지 : 본문디자인(단행본, 아동, 학습서)  
광고커뮤니케이션 : 신문광고 / 잡지광고 / 포스터 / POP / 캘린더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95-1(5F) TEL 02\_325\_6260\_1 FAX 02\_325\_0944  
E-mail\_darumman@korea.com

